



지난해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진행된 '2023 오감만족 인문 힐링 북페어' 모습

<동구문화관광재단 제공>

### '4개월째 공석'...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3차 공모

13일까지 접수...22일 발표

광주문화재단이 4개월째 공석인 대표이사 3차 공모모집에 나섰다.

광주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오는 13일까지 제5대 대표이사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오는 22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표이사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현 시장이 연임되지 않고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시장 임

기 개시 전 임기가 종료된다.

재단 측은 지난해 12월 황봉년 전 대표 퇴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대표이사를 공모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 현재 김요성 광주시 문화체육실장이 권한대행을 맡아 재단을 총괄하고 있다.

김홍석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은 "문화경제부시장 선임도 최근 이뤄진 만큼 대표이사 공모 절차도 서두르고 있다"며 "대표이사 선임 전까지 업무적인 면에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 문화·관광·축제 거점도시 경쟁력 강화

### ●동구문화관광재단 2024 중점사업 발표

광주 동구문화관광재단이 인문도시 동구의 문화 관광 콘텐츠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재단은 올해 동구의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머물고 즐기는 도심관광거점 조성 ▲글로벌 축제도시 핵심콘텐츠 육성 등 25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 글로벌 음악 축제 '광주 버스킹월드컵' 경쟁력 강화

전국 청소년 대상 스트리트댄스 캠프, 테마별 펌투어 생활 속 친근한 문화거점공간 '문화Zip합소' 운영도

### ◇생활 속 친근한 문화예술 확산

재단은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동네 카페, 서점 등을 '문화Zip합소'로 발굴, 생활문화의 거점공간으로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특히 이곳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인 생활문화동아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미래세대인 어린이 맞춤형 문화예술교육도 진행한다. 동구의 9가지 보물과 미래유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는 교육키트를 개발하고 놀이와 체험으로 동구의 자원을 익힐 수 있도록 돕는다.

▲슬슬라이프(슬기로운 슬리퍼 라이프)를 위한 한밤(한밤)의 거리 음악회 ▲충청이하 권역 동네서점들이 참가하는 '제2회 오감만족 인문힐링 북페어' ▲문화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예술배달' 등 주민 곁에서 인문향기를 전하는 사업들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광주 최고(最古) 단관 극장인 광주극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재단이 진행한다. 지속 가능한 광주극장 만들기 위해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통해 '살아있는 극장' 경험을 선사한다.

제2회 광주 버스킹월드컵(위)과 '오감만족 인문 힐링 북페어' 행사 모습.

### ◇머물고 즐기는 도심관광 활성화

2030 MZ세대, 경제력을 갖춘 5000오파(OPAL: Old People with Active Life)세대 등 세대별 취향에 맞춘 특색있는 동구 관광 테마상품도 개발한다. 광주읍성터와 광주폴리, 충장로 골목을 활용한 골목투어는 올해 30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한 투어로 눈길을 끌 전망이다. 재단은 폴리 인근 골목관광자원을 묶어 미션투어를 기획하고 폴리와 골목의 스토리가 드러나는 미션 인증시 골목상가 쿠폰을 제

공해 지역상권 부흥에도 기여한다.

동구의 강점인 스트리트 문화 자산을 활용한 특별한 캠프도 운영한다.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트리트댄스 캠프를 개최하는 것. K-POP 아이돌의 산실인 광주 충장로 댄스 학원들과 함께 합함, 팝핑, 워킹 등 댄스 장르를 배울 수 있는 캠프상품을 출시, 동구의 새로운 관광스토리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이밖에도 광주 맛죽, 풍네여행 등 테마별 펌투어를 운영하고 동구미식관광상품화를 위한 웰컴푸드 공모전 개최, 체류형 관광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숙박업 얼라이언스 등도 준비 중이다.

### ◇글로벌 축제 경쟁력 강화

광주 대표축제인 충장축제와 함께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 '광주 버스킹월드컵'을 올해부터는 재단이 전담해 개최한다. '광주 버스킹 월드컵'은 전세계 50개국 이상에서 뮤지션이 참여해 경연을 벌이는 독특한 음악축제다. 올해는 경연과 음악축제, 스트리트 걸치 축제가 어우러진 풍성한 콘텐츠로 글로벌 축제로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축제 산업 확장에 기여하기 위해 축제 캐릭터인 충장프렌즈 브랜드 상품화에도 더욱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첫 출시한 충장프렌즈 굿즈에 이어 캐릭터 체험이 가능한 '충장프렌즈 하우스'를 충장로에 상시 운영한다. 충장프렌즈를 동구의 대표 문화상품으로 육성하고 방문객 유입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한 체험공간이다. 충장로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해 올 상반기 중 오픈한다.

문장현 동구문화관광재단 대표는 "인문도시, 축제도시, 문화도시인 광주 동구의 매력적인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며 "찾고싶고 살고싶은 도시, 동구 문예르네상스를 여는 데 의미있는 디딤돌을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구문화관광재단은 광주시 기초자치단체 중 동구가 최초로 설립한 문화관광전문조직이다. 동구 문화·관광·축제분야 사업과 동구문화센터, 동구국민체육센터 등 동구 관내 5개 문화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최명진 기자



### ACC 직군탐색, 2년 연속 전남대 교과목 개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발한 직군탐색 산학과정인 2년 연속 전남대학교 교과목으로 개설됐다.

1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 따르면 ACC 문화예술 직군탐색 산학협력 교육과정이 올해 전남대 교양과목인 '문화예술 경영의 이해' 수업으로 운영된다.

ACC 교육과정이 전남대 교과목으로 선택돼 운영되는 것은 지난해 1, 2학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ACC와 한국고용정보원이 함께 개발한 산학

협력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진로 선택 지원 및 관련 직업 분야의 현장 직무·실무 이해를 돕고자 기획됐다.

먼저 한국고용정보원 김중진 연구위원이 오는 26일 전남대 진리관에서 '문화예술 분야 직업세계 이해'란 주제로 강의를 펼친다. 이어 오는 5월20일까지 ▲공연 미디어 전문가(김준섭 칠곡문화재단 본부장) ▲문화유산 교육사(박지영 문화대하기연구소대표) 등 분야별 현장전문가 강의가 총 6회 진행된다.

다. /최명진 기자

### 가족과 함께 '꿀잼 광주' 즐겨볼까

광주여성가족재단, 내달 14일까지 '아이키움 플랫폼' 시민참여 이벤트

광주여성가족재단은 광주시와 함께 다음달 14일까지 광주아이키움 플랫폼 시민참여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는 꿀잼 광주즐거기'를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다양한 스포츠·관광·놀이 자원을 활용해 시민들의 가족단위 문화생활 향유와 행

복한 삶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참여는 스포츠(광주FC, 기아타이거즈 홈경기) 관람 후기 또는 무등산·국립광주과학관·5·18민주화운동기록관 등 우리 지역 문화·관광명소 후기를 인증사진과 함께 광주아이키움 플랫폼 소통방에 게시하면 된다.

광주아이키움 플랫폼은 임신부터 일·생활 균형까지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돌봄지원 정책과 육아갈등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최명진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